

「MEF 스마트그리드 기술로드맵」 확정 발표

- UN 당사국 총회에서 스마트그리드 등 MEF 10대 기술 로드맵 발표 -
 -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강화 기대 -

- UN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2.14일 (현지시각)에 'MEF 스마트그리드 로드맵'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10대 전환적 기술 로드맵(Technology Action Plan)이 확정·발표됨
 - * MEF(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) : 청정에너지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국, G8 등 17개 주요국으로 구성된 포럼
 - * 10대 전환적 기술 : 스마트그리드(한국, 이태리), 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(영국, 호주), 고효율·저배출 석탄(일본, 인도), 건물 에너지효율(미국), 산업 에너지효율(미국), 혁신자동차(캐나다), 태양광(독일), 풍력(독일, 스페인, 덴마크), 바이오(브라질, 이태리), 해양에너지(프랑스)
- 그간 우리나라는 G8확대정상회의('09.7월)에서 이태리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된 이후, 국제실무회의(10월, 로마) 등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쳐 로드맵을 완성한 바 있음
- 이날 미국 에너지부(DoE, MEF 사무국)의 Steven Chu 장관은 10대 로드맵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,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화하기 위해 3.5억불 규모의 REDI 프로그램*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* REDI(Renewables and Efficiency Deployment Initiative,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확산 이니셔티브) : 초고효율 가전·기기 확산(SEAD), 태양·LED에너지 이용(SLED), 청정에너지 정보기반(CEIP), 신재생에너지 증대(SREP, 개도국 지원 중심)
- MEF 회원국 사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'스마트그리드 기술로드맵'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CO₂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40%를 차지하는

전력분야의 감축 노력이 중요하며,

- 특히, 신재생 및 전기자동차 등 저탄소 녹색기술의 대량 보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
 - 스마트그리드의 조기 시행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MEF 회원국 차원의 규제·제도 개발, R&D 및 실증사업 추진, 지식 교류 등 MEF 차원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,
 -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EF 산하에 '스마트그리드 작업반(Working Group)'의 설치·운영을 제안함
 - 한편, 제주 실증단지 등이 스마트그리드 모범사례로 포함되어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대외에 널리 알린 것이 눈에 띈
- 금번 MEF 기술 로드맵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
- 정부는 로드맵 확정을 모멘텀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를 IT·조선 사례와 같이 수출산업화 한다는 계획
 - 이를 위해 내년 1월에 'World Smart Grid Forum'을 개최하고, 전문가의 국제표준화활동 지원 및 국제표준화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힘
- 한편, 12.16일(현지시각) 코펜하겐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을 발표하는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임
- 'Toward Green Economy : UNEP & Korea'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동 행사에는 국제기구 관계자, 해외 언론인 등이 참석할 예정
 - 발표자인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로드맵 및 실증단지에 대해 소개하고, CO₂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

1. 추진 경과

- MEF에서의 스마트그리드 분야 주도적 활동*을 토대로 G8확대 정상회의시 이태리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선정(7월)
 - *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할 미래 핵심기술로 「스마트 그리드」 제안
- 韓·伊 공동작업을 통해 국제 로드맵 초안을 마련*(8월~9월)하고, MEF 참여국의 의견수렴 (9.17일 워싱턴, MEF정상대리인회의)
 - * 로드맵 수립 T/F팀(팀장: 에너지자원실장) 구성·운영 (7~9월)
- 스마트그리드 국제로드맵 초안 MEF 사무국 제출(11.16일)
- MEF 참여국 의견수렴을 위한 국제실무회의 개최(11.29일, 이태리)

2. 주요 내용

●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한 4개 분야 글로벌 협력방향 제안

* 정책·규제·재정, 기술개발 및 표준, 인적자원 및 교육훈련, 보안 및 정보보호

● 세부 협력과제 도출·실행을 위해 MEF산하 작업반 운영 제안

- (혁신지원) 글로벌 차원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전략 수립,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활용 독려
- (정책, 규제 및 재정) MEF 차원의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및 재원조달 체계 개발, 실시간 요금제도 등 신제도 개발
- (기술 및 표준) 국제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협의체 구성
- (정보교류) 회원국간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방안 수립, 소비자의 인식도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수범사례 공유

붙임2 코펜하겐 당사국총회 계기 Side Event 행사 개요

□ 행사명 : Toward Green Economy : UNEP & Korea

□ 희망 일시 : 2009. 12. 16(수), 13:00~14:30

□ 주요 내용

- 우리나라 주요 녹색성장정책 소개
- UNEP 녹색성장 정책평가 최종보고서 소개

□ 참석대상

- 협상대표단, UNEP,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, 회의참석 국내외 언론

□ 시간 계획(1시간 30분)

구분	시간 (분)	행 사 내 용	발 표 자
개회	5	○ 행사개요 및 소개	수석대표 (환경부장관)
UNEP Green Economy Initiative	15	○ UNEP의 Green Economy Initiative 및 UNEP의 한국 녹색성장 평가보고서 소개 (15분)	UNEP 사무총장
한국의 주요정책	30	○ 중기감축목표 설정 (10분)	녹색위
		○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소개 (10분)	외교부/ KOICA
		○ 기술협력, 스마트그리드 (10분)	지경부
패널토의	20	○ UNEP, EU, 동아시아파트너십 수혜국, 미국	패널
질의응답	20	○ 질의·응답 및 토론	